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의 매개효과

이명하¹, 조옥선^{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생, ²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and Sense of Community on Happiness in Adolescent: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yung-Ha Lee¹, Ouk-Sun Cho^{2*}

¹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eneral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²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ong 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진로결정과 행복감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중학생 2,7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Bootstrapp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중학생,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진로결정,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happines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community consciousness, career decision,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for the analysis data, the "2020 Gen Z Teenage Values Survey" data survey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mong the survey subjects, 2,703 middle school stu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sampl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were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indirect effects and significance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Bootstrap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at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itizenship and community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and happiness, career deci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appiness, career deci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Adolescent, Civic consciousness, Sense of community, Career decision, Happiness

*Corresponding Author : Ouk-Sun Cho(sun16070@naver.com)

Received February 22, 2023

Accepted May 20, 2023

Revised March 18, 2023

Published May 28, 2023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대 가치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 행복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정서로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인생 목표로 삼고 있다. 행복의 기준은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나, 행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1].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며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부와 명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구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이처럼 행복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가 세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2022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6.6점으로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7.6점보다 낮아 꼴찌를 기록했다[3].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중학생 시절의 행복감은 이후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기에 인지하는 행복감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부분에서도,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1,4].

중학생의 행복감은 자신의 삶 전 과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개인의 인지된 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진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5]. 중학생의 행복감은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의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학업성취, 진로결정, 대인관계 등 개인 발달의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6-9] 자살생각, 우울, 공격성과 같은 변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6,10]. 이처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인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포함한 시민의식에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다양성 인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시민의식 보장은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인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11,12].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다[13]. 인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면 시민의식이고 시민의식은 우리사회가 대체로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해주며 다양성 인정, 성 평등한 사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등을 의미한다.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 인권감수성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인 시민의식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14], 시민의식이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인식하여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시민참여는 시민의식의 하나로 자신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강화 등을 증가시켰으며, 시민의 자유재량적 활동은 웰빙, 행복, 만족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15].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계속 유지 가능한 삶의 질이나 행복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16], 사회공동체 수준에서의 참여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이처럼 시민의식은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듯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을 들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과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 갖추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 및 윤리의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8].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팽배시켰고, 이는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을 불러와 지역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에 대한 무관심을 발현시켰다[19]. 그 결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공동체의식의 약화로 인해 가장 기본단위인 공동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20]. 최근 청소년의 학교 관련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 역시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이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진정한 공동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18,19]. 중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임을 인식할 때 공동체의식 함양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공동체의식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소속감과 정서, 참여의식을 인지하는 부분에서 행복감과 공통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은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근본으로 이타심과 친사회적행동을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21].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의 건강한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2,23].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인식이 높고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24,25]. 즉,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살펴보았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자신이 행복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미래의 직업과 관련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결정을 의미한다[26]. 진로결정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학업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결정 현상에 대입하여 적용하였다[27]. 진로와 관련된 심리학 이론에서 Kim & Kim[28]은 진로결정을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 진로행동수준 등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중학생의 시민의식(양성평등의식)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바람직한 생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29]에 의하면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직도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였다[30]. 시민의식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시민의식을 묻는 문항 중 양성평등의식이 높으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9].

최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결정(진로성숙도 등)에 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의 사회자본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및 체험활동 참여 등의 지역사회 자본이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31-33]. 이처럼 중학생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회·정서적 지지 등에 의해 진로정체감을 촉진하므로[34], 이러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동체의식이 진로결정을 향상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중학생의 미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진로결정이 자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잘 형성되면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미래의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뿐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35].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진로결정이 잘 이루어지고 진로결정이 되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진로결정은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로결정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도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진로결정은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변수인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과 종속변수인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행복감을 높여 이후 발달과정에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청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개입방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에 밀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였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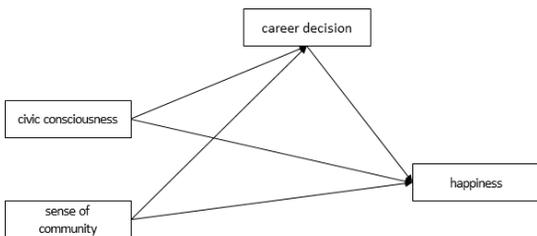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2020년 조사한 횡단자료인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본 연구는 중학생의 가치관을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학생 2,70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행복감

종속변수인 행복감 측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자료에 수록된 인생관을 묻는 내용이며 이를 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36]. 행복감 척

도의 질문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820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

독립변수인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측정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사회 및 국가관을 묻는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각각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식은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공동체의식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각각 .807, .673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 진로결정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진로 및 직업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를 사용하여 진로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은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고 진로나 직업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결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신뢰도 분석결과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수가 .3 미만인 문항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를 제외한 3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691을 보여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셋째,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0]. 마지막으로 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결정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 1,345명(49.8%), ‘여학생’ 1,358명(50.2%), 지역규모는 ‘대도시’ 1,052명(38.9%), ‘중소도시’ 1,413명(52.3%), ‘읍면지역’ 238명(8.8%)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경우’ 668명(24.7%), ‘경제적 수입’ 689명(25.5%), ‘자신의 적성’ 675명(25.0%), ‘직업의 장래성과 안정성’ 399(14.8%), ‘기타(사회적 지위, 사회 기여도, 의사결정권, 자아성취 등 포함)’ 238명(10.0%)이 분포하고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703)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1,345	49.8
	Women	1,358	50.2
Regional Size	big city	1,052	38.9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413	52.3
	the township area	238	8.8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a job	one's own ability	668	24.7
	economic income	689	25.5
	one's aptitude	675	25.0
	career prospects and stability	399	14.8
	another	238	10.0
Reliability	be completely unbelievable	119	4.4
	can't believe	634	23.5
	normal	551	20.4
	can believe	1,300	48.0
	very reliable	90	3.3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 119명(4.4%), ‘믿을 수 없는 편이다’ 634명(23.5%), ‘보통’ 1551명(20.4%), ‘믿을 수 있는 편이다’ 1,300(48.0%), ‘매우 믿을 수 있다’ 90명(3.3%)을 보여주

고 있다.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변수는 무응답이 각각 34명(1.3%), 9명(3%)을 차지하고 있다.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시민의식 평균값은 2.84(표준편차=.49), 공동체의식 평균값은 2.71(표준편차=.51), 진로결정 평균값은 3.08(표준편차=.58), 행복감의 평균값은 3.10(표준편차=.61)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703)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civic consciousness	1.00	4.00	2.84	.49	-.34	.84
sense of community	1.00	4.00	2.71	.51	-.32	.64
career decision	1.00	4.00	3.08	.58	-.22	-.22
happiness	1.00	4.00	3.10	.61	-.42	.32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시민의식은 공동체의식($r=.47, p<.01$), 진로결정($r=.24, p<.01$), 행복감($r=.41, p<.01$)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civic consciousness	sense of community	career decision	happiness
civic consciousness	1			
sense of community	.47**	1		
career decision	.24**	.20**	1	
happiness	.41**	.27**	.47**	1

**p<.01.

공동체의식은 진로결정($r=.20, p<.01$), 행복감($r=.27, 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결정은 행복감($r=.47, p<.01$)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4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7]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는 최소자승기준(Ordinary Least Square, OLS)에 다른 선형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표본에 대해 반복적인 복원추출법(Bootstrapping-test)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경로의 유의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37]. PROCESS MACRO 분석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할 때, 분석결과에서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와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의 값을 보고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된다. 이때 LLCI는 신뢰구간 하한 값을 의미하고 ULCI는 신뢰구간 상한 값을 의미한다.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모두 0보다 크면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고 모두 0보다 작으면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진로결정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체의식 변인은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Model 1에서는 시민의식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과 직접효과를 주는($Effect=.22, t=8.54, p<.001$)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Model 2에서는 시민의식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ffect=.46, t=18.31, p<.001$) 직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진로

결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시민의식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Effect=.37, t=16.01, p<.001$), 진로결정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 t=23.85, p<.001$).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고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될수록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결정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민의식 변인은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Model 1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과 직접효과를 주는($Effect=.13, t=5.38, p<.001$)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Model 2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ffect=.11, t=4.68, p<.001$) 직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Effect=.06, t=2.65, p<.01$), 진로결정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 t=23.84, p<.001$). 중학생의 진로결정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

Table 4.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career decision, and happiness

path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 1	civic consciousness → career decision	.22	.03	8.54	.000	.17	.27
Model 2	civic consciousness → happiness	.46	.03	18.31	.000	.41	.51
Model 3	civic consciousness → happiness	.37	.02	16.01	.000	.32	.41
	career decision → happiness	.41	.02	23.85	.000	.38	.45

Table 5.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ath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 1	sense of community → career decision	.13	.02	5.38	.000	.08	.18
Model 2	sense of community → happiness	.11	.02	4.68	.000	.06	.16
Model 3	sense of community → happiness	.06	.02	2.65	.008	.01	.10
	career decision → happiness	.41	.02	23.84	.000	.38	.45

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이 잘 형성되고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될수록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6 진로결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청소년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PROCESS MACRO 분석에서 결과 값이 신뢰구간 안에서 숫자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민의식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06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Boot LLCI=.07이고 상한값이 Boot ULCI=.11이므로 둘 사이에 숫자 영을 포함하지 않아 진로결정의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5로 나타났다. 더불어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Boot LLCI=.03 이고 상한값이 Boot ULCI=.07이므로 둘 사이에 숫자 영을 포함하지 않아 진로결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Bootstrapping analysis

Path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1) → 3) → 4)	.09	.01	.07	.11
2) → 3) → 4)	.05	.01	.03	.07

*p<.05, **p<.01, 1) civic consciousness 2) sense of community 3) career decision 4) happines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독립변수를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조사대상 중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7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이 각각 중학교의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beta=.46, p<.001$), 공동체의식을 잘 형성할수록($\beta=.11, p<.001$)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8]. 청소년의 시민의식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보면 인권존중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39].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38,40].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공동체의식의 지역연대감과 지역친밀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41]. 이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변인의 부분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인지할수록 분명한 인생목표를 갖게 되어 진로결정이 높아지고, 진로결정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부모와 학교의 친인권적 환경이 행복감(삶의 만족도)을 높여준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12,39].

또한, 청소년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자원을 넉넉하게 갖고 인지할수록 진로결정이 증진되고[32], 진로결정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42].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결정과 연결성을 갖고 있는 진로정체감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43]. 즉, 공동체의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진로결정도 변화하게 되고 진로에 대해 결정하게 되면 청소년은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확인하고 진로를 위한 노력을 또래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판단이 가능하고 스스로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판단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타인과 협력해 살아가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결정을 확립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고 판단할수록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진로결정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방임, 공동체의식,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Kim & Kim[44]은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진로결정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진로정체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신의 진로설계를 결정할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4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1]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은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권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가 학교폭력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방관자로 있지 않고 학교관계자나 교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식개선 운동을 제안한다. 또한, 중학생들이 어떤 시점으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야가 다름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은 서로 다름을 인식할 수 있고 인권을 존중하게 되며,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후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생들이 양성평등과 인권존중, 공정한 사회 구현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은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학생들에게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조별로 나누어 찾아 발표해 보는 것과 지역사회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동시에 충분한 자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학생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확산을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조별 등산이나 집단별로 공을 머리로 이동하는 것, 조별 달리기 시합, 봉사활동 등 집단활동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행복감을 상승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중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한 강사를 통해 직업의 특성과 전망을 배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중학생들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금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학생들 눈높이 맞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군만 선호하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몇 년씩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중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의 낙오자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살펴볼 수 못하고 몇 개의 변수로 한정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중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조사로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단연구를 실시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조사대상자의 내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함께 이루어져 양적과 질적의 부족 부분을 서로 보충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및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시민의식,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FERENCES

- [1] J. G. Yu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i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8(1), 29-48.
DOI : 10.36697/skya.2022.8.1.29
- [2] R. Veenhoven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05-629.
- [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2). Korea's Social Trends 2022.
<https://kostat.go.kr/wnsearch/search.jsp>
- [4] T. Avedissian & N. Alayan (2021). Adolescent well-Being: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0(2), 357-367. DOI : 10.1111/inm.12833
- [5] I. S. Kim & H. Y. Hong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ubjective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 *Korean Youth Research*, 13(1), 53-75.
UCI : G704-000387.2016.23.1.001
- [6] S. R. Lee., E. K. Kim & H. S. Yoon. (2015). The Effect of Happiness in the Adolescents on the Youth Developments in Korea.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4), 413-438.
DOI : 10.16881/jss.2015.10.26.4.413
- [7] H. Hwang & Y. H. Kim (2017).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Happiness Determinants among Domestic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1-28.
DOI : 10.21509/KJYS.2017.06.24.7.1
- [8] M. H. Kim., J. H. Moon & K. O. Seong (2014).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fluential Factors Across Different Life Cycles in Adulthood: Application of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4), 857-875. UCI : G704-000573.2014.34.4.009
- [9] M. S. Kim., H. W. K & K. H.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40.
UCI : I410-ECN-0102-2009-180-005712699
- [10] S. Y. Cho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Monitoring, the Neglect and Subjective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59-84.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27929
- [11] D. J. Hwang., H. Song & S. H. Kim (2015).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Education on Adolescents' Awareness of Human Right -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 *Korean Youth Research*, 22(10), 77-100.
UCI : G704-000387.2015.22.10.008
- [12] S. Y. Lee (202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Youth Research*, 29(8), 509-529.
DOI : 10.21509/KJYS.2022.08.29.8.509
- [13] UN (1994).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
- [14] H. J. Lee (2016).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Youth: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Social Capital Factor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39, 151-186.
- [15] M. H. Kim & S. J. Lee (2019).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 Lif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4), 91-123.
DOI : 10.22897/kipajn.2019.28.4.004
- [16] K. Portney (2005). Civic Engagement and Sustainable Cities in the United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579-591.
DOI : 10.1111/j.1540-6210.2005.00485.x
- [17] M. M. Whitham (2007). Living Better Tog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in Small Town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DOI : 10.31274/rtd-180813-15945
- [18] G. Y. Kang & Y. M. Jang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UCI : I410-ECN-0102-2022-300-000530604
- [19] S. W. Park (2022).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in Dance Activities on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Korea Open Access Journals*, 38, 303-329. DOI : 10.20976/kjas.2022..38.014
- [20] J. H. Lee (2014). Effects of Economic Educa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Based on Inquiry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383-400.
UCI : G704-000666.2014.19.4.010
- [21] Y. J. Choi & I. J. Park (2018).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 Mother's Sense of Community, Happiness, Resilience and Ego-resiliency, and Car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9(4), 315-351.
DOI : 10.22154/JCLE.19.4.12
- [22] H. B. Park (2016).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the Sense of Commun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23] M. W. Chi & T. Y. Cho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6), 145-165.
UCI : I410-ECN-0102-2014-300-001588290
- [24] S. W. Kwon., A. H. Lee & I. H. Song (2012).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3(2)39-72.
UCI : G704-001385.2012.23.2.001
- [25] R. Gilman & E. S. Huebner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293-301.
- [26]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9(1), 311-333.
UCI : I410-ECN-0102-2009-180-006949234
- [27] J. N. Yoo & S. Y. Kim (2018). A Study on Career Decision Factors of Immigrant Youth.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3(1), 3-46.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337>
- [28] B. R. Kim & B. W. Kim (2015). The Effects of the Collective Career Exploration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Identity of the Dropout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2), 1-22. UCI : G704-001285.2015.28.2.004
- [29] S. J. Mu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Vocational Prefer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jor in Sociolog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30] Y. G. Shin (2010).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fication and Gender Equality Sense on Career-Related Vari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jou University, Master of Education.
- [31] S. K. Kim (2015).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on Youths' career Identity. *Th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51, 1-24.
- [32] E. J. Park., Y. R. Lee & S. H. Lee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Capital on Their Career Identification by Parents' Income Strata: Focusing on Third Year Middle School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237-263. UCI : G704-000387.2016.23.5.009
- [33] S. Y. Noh & N. S. Yu (2018).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Self-identity with Career 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2), 21-37.
DOI : 10.19031/jkheea.2018.06.30.2.21
- [34] C. H. Yoon & S. Y. Han (2015). The Effects of

- Self-estee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Career Identity of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145-170.
UCI : I410-ECN-0102-2015-300-002113773
- [35] J. M. Hinkelman & D. A. Luzzo (2007). Mental Health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5, 143-147.
DOI : 10.1002/j.1556-6678.2007.tb00456.
- [36]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20).
<https://www.nypi.re.kr/contents/mainpage.do>
- [37] A. F. Hayes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38] Y. B. Kang & J. M. Lee (2022). The Effect of Career Resilience on Youth's Subjective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hip. *Journal of Youth Welfare*, 24(3), 61-89.
DOI : 10.19034/KAYW.2022.24.3.03
- [39] S. J. Park & K. A. Park (2020). The Effect of Youth's Respect for Human Right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349-365.
DOI : 10.22251/jlcci.2020.20.22.349
- [40] J. I. Yu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i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8(1), 29-48. DOI : 10.36697/skya.2022.8.1.29
- [41] S. Ham (2017). The Effect of Community Sense of Youth in Rural Areas on Happiness. The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 [42] S. H. Son., Y. S. Kang & J. Y. Kim (2019). The Effects of Vocational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n their Happines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2), 323-341.
DOI : 10.23944/jsers.2019.06.58.2.14
- [43] M. J. Kim & H. I. Cho (2017).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Simultaneous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29, 97-118.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23138
- [44] Y. M. Kim & B. W. Kim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4), 73-202.
DOI : 10.18612/cnues.2020.41.4.173
- [45] S. A. Kang & H. R. Nam (2022).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on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6(2), 41-51.
DOI : 10.34089/jknr.2022.6.2.41

이 명 하(Myung-Ha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20년 2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21년 2월~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족복지
- E-Mail : aialmh@naver.com

조 옥 선(Ouk-Sun Cho)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0년 3월~현재 :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여성, 청소년, 다문화, 이주노동자
- E-Mail : sun16070@naver.com